

□ 종합의견

ATF 한국공동관 애니메이션 참가기업 평가대상 22곳의 참가 신청서를 7명의
평가위원이 면밀히 검토하였고,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콘텐츠 경쟁력, 해외진출 역량, 참가계획 및 목표를 평가하여
최종 참가기업을 선정했습니다.

프리스쿨 외에 청소년, 성인용 애니메이션 제작, 숏폼, 장편 애니메이션 기획 등
다양한 장르와 티킷의 IP제작이 이뤄지고 있고,
장르와 표현 기법의 다양성도 돋보여
한국 애니메이션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공동관참가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선정된 기업들이 2026 ATF 한국공동관을 통해 K-애니메이션의
경쟁력과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비즈니스 성과와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